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hings we have to do now?

1005

그동안 주변의 건축문화에 대한 갈증과 변화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협회가 이런 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건축계의 통합”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확신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정관의 총족요구인 참석 대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깐 책임을 느끼고 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생각도 강력하게 들었지만, 그동안 10년이 넘게 쏟아온 시간과 열정을 헛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국제적으로는 생활의 대부분이 되어온 협회관련 활동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 주변의 강력한 사퇴만류를 핑계로 사퇴를 보류했습니다.

지금은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 협회의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를 통해 우리 건축사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시대라는 틀 안에서 다자간 혹은 양자 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와 FTA를 맺고 있으며,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정상회담 등의 굵직한 국제행사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저 함도 이런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상대국에게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입지를 알리고 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협력의 틀은 결국 자국 국민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득을 얻어내며 협상을 통해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 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계도 5년 전 의무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변화되면서 회원의 수가 줄어들고 젊은 신규 건축사 등록자들은 가입을 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점차 위세를 잃어가며 설 자리를 위축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만 변화의 대세에서 밀리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내적인 상황의 변화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위상의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건축이 건설의 하위분야로 전락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을 건축문화로서 도시를 이루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라는 우물 안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과감하게 바깥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통섭’이라는 말이 우리시대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협회나 건축사가 되어야 통섭의 시대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협회나 건축사 회원들이 건축사로서 존재함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성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이미 얻어진 국가의 위상을 통해 우리 건축사집단도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 매체나 출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타 경쟁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등함을 알리고 우리의 건축사 회원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2017년의 UIA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FIKA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7년이나 남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후배들의 역량을 알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치활동을 통해 한국의 건축을 더 알릴 수 있고, 유치를 통해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작지만 네덜란드 건축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보는 너무 먼 바램일까요? ■



신춘규 / Shin, Chung-gyu, KIRA/A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약력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담당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